

〈홍길동전〉의 유형에 대하여

김동욱*

1. 서론
2. <홍길동전>의 구성
3. <홍길동전>의 유형 검토
4. 결론

<국문초록>

<홍길동전>은 ‘영웅의 일생’ 구조를 지니고 있는 영웅소설 유형의 작품으로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홍길동전>은 영웅소설과 이질적이다. 영웅소설은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인공은 적당한 인물로 천상계의 질서를 매개하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승리를 거둔다. 이와 달리 <홍길동전>에는 천상계에 대한 서술이 없고, 주인공도 적당한 인물이 아니며,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도 없다. 홍길동은 마지막까지 적서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조선을 떠난다. 이러한 <홍길동전>의 주인공 형상과 결말은 일사소설과 유사하다. 일사소설의 주인공은 적당한 존재가 아니며, 사회의 모순과 맞서 싸우지만 비극적인 최후를 맞거나 부지소종의 결말을 맞는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영웅소설 유형으로 논의되었던 <홍길동전>에 일사소설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홍길동전>의 유형 문제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핵심어: <홍길동전>, <전우치전>, 영웅소설, 일사소설, 군담소설.

1. 서론

<홍길동전>은 허균이 지었다고 알려진 국문소설로, 초기부터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관련 연구가 축적되면서, <홍길동전>의 작자 문제,¹⁾ 서사구조의 통일성 여부,²⁾ 주제 및 작가의식 문제³⁾ 등 쟁점마다 여러 연구자들의 다양한 논의가 제출되었다. 연구사의 초기 단계에 비해 <홍길동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새롭게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길동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 역시 그 편차가 매우 심한 편이다. 다만 <홍길동전>의 유형을 ‘영웅소설’로 보는 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견이 적은 듯하다.

영웅소설 유형은 주인공이 “고귀한 혈통에서 비정상적으로 출생해서, 기아가 되거나 가출해서 고난을 겪고, 투쟁을 거쳐 승리자가 된다.”는 ‘영웅의 일생’ 유형구조를 지닌 작품을 일컫는다.⁴⁾ 조동일은 이 유형구조가 우리나라

- 1) <홍길동전>의 작자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택당집』의 기록대로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다고 인정하되 현전하는 <홍길동전>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는 입장이 많다. 관련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장효현, 『<홍길동전>의 생성과 유전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29, 국어국문학회, 2001; 이윤석, 『<홍길동전> 작자 논의의 계보』, 『열상고전연구』 36, 열상고전연구회, 2012; 박재민, 『허균 작 <홍길동전>의 복원에 대한 시론』, 『한민족어문학』 65, 한민족어문학회, 2013.
- 2) <홍길동전>의 서사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하거나 모순적이라는 지적은 이재수, 김동욱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와 달리 <홍길동전>의 서사를 일관된 원리로 해명하는 연구도 김일렬, 안창수, 엄기주 등에 의해 제출되었다. 이재수, 『한국소설연구』, 선명문화사, 1969, 165면; 김일렬, 『<홍길동전>의 불통일성과 통일성』, 『어문학』 17, 한국어문학회, 1972; 김동욱, 『<홍길동전>의 비교문학적 고찰』, 『허균의 문학과 혁신사상』, 신동욱 편, 새문사, 1981, 96면; 안창수, 『반항과 순응의 양상을 통해서 본 <홍길동전>』, 『어문학』 48, 한국어문학회, 1986; 김일렬, 『<홍길동전>의 구조와 의미』, 『국어국문학』 99, 국어국문학회, 1988; 엄기주, 『<홍길동전>의 구조와 의미』, 『수선논집』 16,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1.
- 3) <홍길동전>의 주제 또는 작가의식의 해석과 관련된 주요 성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임형택, 『<홍길동전>의 신고찰』 상·하, 『창작과비평』 11권 4호·12권 1호, (주)창비, 1976·1977; 이문규, 『<홍길동전>의 성격』,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이강욱, 『<홍길동전>의 제문제와 그 해결』, 『한국고전소설론』, 새문사, 1990; 박일용, 『<홍길동전>의 문학적 의미 재론』, 『고전문학연구』 9, 한국고전문학회, 1994; 이윤석, 『<홍길동전> 해석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9, 열상고전연구회, 1996; 윤주필, 『중세 지식인의 존재 방식과 <홍길동전>』, 『고소설연구』 7, 한국고소설학회, 1999; 박일용, 『이본 편이 양상을 통해서 본 <홍길동전> 서술시각의 중층성』,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이상구, 『<홍길동전>의 서사전략과 작가의 현실인식』, 『국어교육연구』 52, 국어교육학회, 2013.
- 4)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10,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라의 고대신화에서 유래했다고 보고,⁵⁾ 주몽신화를 비롯한 국조신화에서 <홍길동전>, 그리고 후대의 영웅소설로 이어지는 흐름을 제시했다.⁶⁾ 그의 문학사적 구도에서 <홍길동전>은 우리 국조신화와 영웅소설을 잇는 연결 고리일 뿐 아니라,⁷⁾ ‘최초의 영웅소설’로서 후대의 영웅소설을 선도하는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⁸⁾

그가 제안한 ‘영웅의 일생’ 개념은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져 방대한 양의 영웅소설 담론을 만들어 냈다.⁹⁾ <홍길동전>은 현재 중학교 교과과정에 나오는 작품이기도 한데, 교사용 지도서 역시 <홍길동전>이 영웅소설 유형에 속한다는 조동일의 학설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¹⁰⁾

그렇지만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고귀한 혈통’의 소유자인데 홍길동은 천한 신분의 소유자로 나오는 등, <홍길동전>에는 영웅소설의 유형구조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도 한다.¹¹⁾ 이러한 불일치에 대한

1971, 166면.

- 5) “영웅소설은 고대신화 이래의 오랜 전승인 ‘영웅의 일생’을 작품화한 것”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9, 269면.
- 6) 그의 연구에 의하면 초기소설은 무용소설, 명훈소설, 일사소설, 영웅소설의 네 가지 유형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중 신화의 맥을 이은 영웅소설에서 ‘자아의 신화적 성격’이 창산되고 ‘범속한 일상적 인간’을 주인공으로 삼는 장르적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영웅소설이 양적으로 국문학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위의 책, 272면.
- 7) “고전적인 영웅 이야기와 뒤에 나올 영웅소설의 중간적 성격” 조동일, 앞의 글, 211~212면.
- 8) 다만 이후의 연구에서 <최고운전>의 창작연대가 앞선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홍길동전>이 ‘최초의 영웅소설’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게 되었다. 김현룡은 <효빈잡기(效顰雜記)>의 기사를 토대로, <최고운전>의 창작연대를 1579년 이전으로 소급시켰다. 또 박일용은 『화동인물총기(話東人物叢記)』에 실린 “최고운사적”이 현전 <최고운전>의 초기 형태라는 점을 근거로, <최고운전>의 창작 연대를 1389년 이전으로 추정했다. 김현룡, 『<최고운전>의 형성 시기와 출생담고』,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박일용, 『<최고운전>의 창작 시기와 초기본의 특징』,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 9) 영웅소설에 해당되는 일군의 소설들은 ‘군담소설’로 불리기도 하는데, 영웅소설과 군담소설 개념의 차이 및 범주에 대한 견해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관련된 주요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서대석, 『영웅소설의 전개와 변모』,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1993; 서인석, 『영웅소설 연구사의 담론들: 논쟁과 편견』,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2008; 김현양, 『“영웅군담소설”의 연구사적 조망』, 『민족문학사연구』 46, 민족문학사학회, 2011.
- 10) 윤여탁 외 21인, 『중학교 국어』 2, 미래엔, 2013, 190면; 박영목 외 14인, 『중학교 국어』 2, 천재교육, 2013, 609면; 한철우 외 17인, 『중학교 국어』 2, 비상교육, 2013, 119-1면.
- 11) 이 논문은 조동일의 ‘영웅소설’과 ‘일사소설’ 개념을 취하는 동시에, <홍길동전>을 영웅소설로 파악한 해석에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이러한 본고의 논의 방식은 일견 모순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조동일의 영웅소설 개념은 애초에 <홍길동전>에서 나온 것이

지적은 일견 사소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홍길동전>의 문학사적 위상과 비중을 감안한다면, <홍길동전>의 유형에 관한 문제는 다시금 꼼꼼히 따져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 인용한 <홍길동전>은 대다수 선행연구에서 주 자료로 삼은 경판24장본(한남서림본)이다.¹²⁾ 필요할 경우 그 외의 이본도 참고하기로 한다.

2. <홍길동전>의 구성

2.1. 홍길동의 인물형상

홍길동의 부친은 명문가의 재상으로, 낮잠을 자다가 청룡이 달려드는 꿈을 꾸고 시비 춘섬과 동침하여 홍길동을 얻는다. 홍길동의 기골이 비범하여 영웅호걸의 기상이 있으니, 부친은 기뻐하면서도 그가 천출(賤出)임을 안타까워한다. 홍길동 역시 호부호형을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스럽게 여긴다. 아래는 <홍길동전>의 서두 부분이다.

선시의 공이 길동을 나흘 씨의 일몽을 어드니, 문득 뇌정벽벽(雷霆霹靂)이 진동하며 청룡이 슈염을 거스리고 공의게 향하여 다라들거늘, 놀나 씨다르니 일장춘몽(一場春夢)이라. … 과연 그 달뵈허 티기 잇서 십삼만의 일기 옥동을 싱히니, 기골이 비범하여 진짓 영웅호걸의 기상이라. 공이 일변 깃거허나 부인의게 나지 못허를 한허더라. 길동이 점점 즈라 팔세 되미 총명이 과인하여 혼아홀 드르면 빙을 통허니 공이 더욱 인중허나 근본 천성(賤生)이라. 길동이 미양 호부호형(呼父呼兄)허면 문득 쑤지저 못 허게 허니 길동이 십세 넘도록 감히 부형을 부르지

아니다. 그는 고대신화에서 ‘영웅의 일생’ 구조를 추출하고, 이러한 유형구조를 지닌 소설을 ‘영웅소설’로 규정하면서 <홍길동전>, <소대성전>, <유충렬전>, <조웅전> 등을 그 사례로 지목했다. 본고는 <홍길동전>에 ‘영웅의 일생’ 구조를 적용시킨 선행연구의 논의가 작품의 실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다.

12) 현존 <홍길동전>의 이본은 30종이 넘는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연구의 대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이본은 경판24장본(한남서림본)이다. ‘영웅의 일생’ 유형구조를 제안한 조동일의 연구 역시 경판24장본을 대상으로 했다. 본고도 경판24장본을 주요자료로 삼되, 필요할 경우 다른 이본을 참고한다.

못하고 비복 등이 천더호를 각골통한(刻骨痛恨)호여 심스롤 정치 못 호더니 ...
길동이 지비 고 왓,

“쇼인이 평성 설운 바는 대감 정기로 당당호은 남지 되여스오니 부성모혹지
은(父生母畜之恩)이 김습거늘 그 부친을 부친이라 못 호옵고 그 형을 형이라 못
호오니 엇지 사람이라 호오리잇가?”

호고 눈물 흘여 단삼을 적시거늘 공이 청과의 비록 측은하나 만일 그 뜻을 위
로호면 모름이 방즈홀가 저어 크게 꾸지저 왓,

“지상가 천비(賤婢) 쇼싱(所生)이 비단 너뿐이 아니여든 네 엇지 방즈호미 이
갓호뇨? 츠후 다시 이런 말이 이시면 안전(案前)의 용납지 못 호리라.”

호니 길동이 감이 일언을 고치 못 호고 다만 복지유체(伏地流涕)뿐이라. 공이
명호여 물너가라 호거늘 길동이 침쇼로 도라와 슬허호를 마치 아이호더라.(<홍
길동전> 1장 뒷면~3장 앞면)

<홍길동전>에는 주인공이 천상계에서 적강했다는 언급을 찾아볼 수 없
다. 태몽인 청룡 꿈은 홍길동의 비범함을 암시하는 징조이기는 하지만, 주
인공이 과연 천상계에서 적강한 초월적 존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홍길동의 부친은 명문가의 재상으로 ‘고귀한 혈통’의 소유자이지만, 홍길동
은 그렇지 않다. 홍길동의 어머니 춘섬은 천한 출신이기 때문이다. 인용문
에서도 홍길동이 자신의 미천한 신분을 불행하게 여기고 괴로워한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인공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한다는 점 역시
<홍길동전>의 특징이다. 홍길동의 부친은 홍길동의 처지를 동정하면서도,
‘너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은데, 왜 너만 이렇게 방자하게 구느냐’고
대답한다. 여기에서 홍길동의 고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
진다. 이후 홍길동은 부친으로부터 호부호형을 허락받지만 끝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부친의 허락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배려일 뿐 적서차
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곡산 출신의 기생첩 초난은 시비였던 춘섬이 홍길동을 낳아 상공에
게 귀하게 대접받는 것을 질투하여 그들 모자를 해칠 계교를 꾸민다. 초난
이 남몰래 관상 보는 여인을 매수하여 홍길동에게 역모의 상이 있다는 모
함을 하니, 과연 부친은 홍길동을 의심하여 그의 행동거지를 엄히 살피게

된다. 의심을 받게 된 홍길동은 설움을 참고 홀로 『육도』, 『삼략』과 천문지리 등을 공부하며 지낸다. 얼마 후 초난이 홍길동을 제거하기 위해 자객을 보내자, 홍길동은 도술을 부려 자객을 무찌른다.

츠후로 공이 길동을 산정의 머물게 하고 일동일정을 엄숙히 살피니 길동이 이를 당하되 더욱 설우물 이기지 못 하니 홀 길 업서 육도(六韜), 삼략(三略)과 천문지리(天文地理)를 공부하더니 공이 이 일을 알고 크게 근심하여 왓,

“이 놈이 본디 지죄 잇스미 만일 범남흔 의스를 두면 상녀(相女)의 말과 갓흐리니 이를 장춧 엇지 하리오.”

하더라. … 츠설, 길동이 그 원통흔 일을 생각하되 시식을 머무지 못 혈 일이 로되 상공의 엄녕이 지중하무로 홀 길 업서 밤이면 잠을 날우지 못 하더니 츠야의 축을 밝히고 주역(周易)을 잠심(潛心)하다가 문득 드르니 가마귀 세 번 울고 가거늘 길동이 고이히 녀여 혼즈말노 니르되,

“이 잠심은 본디 밤을 찌러거늘 이제 울고 가니 심히 불길하도다.”

하고 잠간 팔괘(八卦)를 버려 보고 더경하여 서안을 물니치고 둔갑법(遁甲法)을 행하여 그 동정을 살피더니 스경(四更)은 하여 혼 스름이 비슈를 들고 완완이 방문을 열고 드러 오는지라. 길동이 급히 몸을 감초고 진언(眞言)을 녀하니 홀연 일진음풍이 니러나며 집을 간 더 업고 첩첩흔 산중의 풍경이 거록흔지라.<홍길동전> 4장 뒷면~5장 뒷면)

자객이 비슈를 들고 습격하자, 홍길동은 진언을 외워 도술을 부린다. <홍길동전>에는 홍길동이 도술을 언제, 누구로부터 배웠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가 도술을 부리는 장면은 다소 갑작스럽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홍길동은 어떻게 도술을 부릴 수 있게 된 것일까?

선행연구는 홍길동이 ‘주역’을 잠심했다는 구절에 주목했다. 홍길동은 평소 『육도』, 『삼략』과 천문지리 등을 공부하며 지냈으며, 자객이 습격했을 때는 마침 『주역』을 잠심하던 중이었다. 조동일은 이에 대해 “『주역』을 공부한다고 해서 곧 도술을 터득할 수는 없을 것”이니, 홍길동의 도술은 주몽의 도술과 마찬가지로 “자아로 하여금 신화적인 능력을 갖도록 하는 신화적인 전제”¹³⁾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홍길동의 도술은 선천

13) “<홍길동전>은 교술적이거나 전설적 성격을 지나지 않고 신화적 성격을 지닌다. 신화적

적으로 비범했던 그의 자질 덕분이니, 이는 신화의 흔적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홍길동이 도술을 익힐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비범함 덕분이며, 이러한 비범함은 선천적인 능력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비범함은 ‘잠재적인 자질’이고, 도술은 실제 발휘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 신화의 주인공이 지닌 ‘신화적 능력’은 주인공이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지니고 태어난 것으로서, 『주역』을 잠심하는 등의 후천적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¹⁴⁾

홍길동은 『주역』 말고도 『육도』, 『삼략』과 천문지리를 꾸준히 공부하던 상태였다. 홍길동이 『육도』, 『삼략』과 천문지리를 공부하고 『주역』을 잠심했다는 서술은 주인공이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도술을 익히는 과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즉 홍길동의 비범한 자질과 별개로, 그의 도술은 후천적인 학습과 노력에 의해 갖춰진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고전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육도』, 『삼략』과 천문지리, 『주역』’ 등을 공부해서 도술을 터득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사각전>에서는 주인공이 청운도사로부터 ‘『육도』, 『삼략』과 천문지리’를 배우며, <소대성전>의 소대성은 청룡사 도승과 함께 지내며 ‘병서와 경문’을 학습한다. <신유복전>은 원강대사가 주인공에게 ‘손오병서와 『육도』, 『삼략』, 구궁팔괘, 창검 쓰는 법’을 전수하고, <용문전>에서는 연화도사가 ‘무경칠서와 궁검기술, 천문지리, 『육도』, 『삼략』’을 가르쳐 주며, <현수문전>은 일광도사가 ‘병법과 칼 쓰기’를 가르친다.¹⁵⁾ 이들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도술’이나 ‘기이한 술법’을 배웠다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주인공은 『육도』, 『삼략』 등

성격은 우선 자아의 능력에서 보인다. 어린 홍길동이 언제 어떠한 납득할 만한 과정을 거쳐서 도술을 배워 위대한 자아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말인가? 작품에서는 자객이 오기 전에 ‘주역을 잠심하다’라는 말 밖에는 없다. 『주역』을 공부한다고 해서 곧 도술을 터득할 수는 없을 것이니, 이 귀절이 문제의 해답은 아니다. 홍길동의 도술은 주몽의 도술과 함께 자아로 하여금 신화적인 능력을 갖도록 하는 신화적인 전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중략)… 신화가 남긴 이러한 흔적은 자아와 세계의 소설적 대결을 철저하게 구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므로, 다음 시기의 소설에서 극복되리라고 생각한다.” 조동일, 앞의 책, 261면.

14) 국조신화 중 하나인 주몽신화를 사례로 들어 비교해 보면, 주몽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활로 파리를 쏘아 맞혔다. 이후 주몽이 부여국을 떠나 도주할 때 강이 길은 가로막자, 주몽은 활을 강물에 대고 하늘에 축원한다.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나타나 강에 다리를 놓았고, 주몽 일행은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주몽 신화에서 주몽의 신이한 능력은 그의 후천적인 노력과 무관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15) 김동욱, 『군담소설의 도술화소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80~81면.

의 방법이나 천문지리, 구궁팔괘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도술을 부릴 수 있게 된다. 조선시대의 독자들에게 『주역』이나 『육도』, 『삼략』 등은 도술을 터득할 수 있는 신비로운 책으로 인식되었던 듯하다.

<홍길동전>의 특징은 홍길동이 그 과정을 스스로 해 냈다는 점이다. 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은 도사나 도승과 같은 조력자가 존재하며, 조력자가 준 신이한 무기와 용마 등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홍길동전>에는 홍길동이 ‘스승’으로 부를 수 있는 조력자가 등장하지 않으며, 신이한 무기나 용마에 대한 언급도 없다. <홍길동전>은 홍길동의 독자적인 도술 학습과 정만이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홍길동의 인물형상이 지닌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홍길동전>에는 홍길동과 천상계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다수의 영웅소설이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인공을 천상계에서 적당한 초월적 존재로 형상화하는 것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둘째, 홍길동은 명문가의 자제이지만, 작품에서는 서얼 출신이라는 그의 미천한 신분이 보다 부각되어 있다. 영웅소설의 주인공이 명문거족의 후손이자 고귀한 혈통의 소유자로, 신분에 대한 열등감이 없는 점과 대비된다. 셋째, 홍길동의 고민은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영웅소설의 주인공도 초반에 고난을 겪지만, 그들의 고난은 천명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서 종국에는 해결되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홍길동전>의 적서차별 문제는 당시 지배질서의 모순에서 비롯되었으며, 작품에는 이에 대한 해법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넷째, 홍길동은 독학으로 도술을 터득한 인물이다. 대다수 영웅소설에는 주인공에게 도술을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존재하지만, <홍길동전>에는 조력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2.2. 부지소종(不知所終)으로서의 결말

홍길동은 집을 떠난 후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어 조선 팔도를 소란스럽게 한다. 조정에서는 홍길동을 잡기 위해 포도대장 이흠을 보내지만 그는 도리어 홍길동에게 조롱만 당한다. 부친 홍판서와 형 인형으로 하여금 홍길동을 붙잡게 하는 방법까지도 썼지만 소용이 없다. 조정에서 홍길동을 잡

을 방책을 고민할 때, 홍길동은 자신을 병조판서에 임명하면 조선을 떠나겠다는 방문을 붙인다. 조정은 체면 때문에 이를 망설이다가, 결국 벼슬을 주기로 결정한다.

츠셜, 길동이 초인(草人)을 업시하고 두로 단니더니 사대문의 방을 붓쳐시되,
“요신 홍길동은 아모리 하여도 줍지 못하니, 병조판서(兵曹判書) 교지를 나
리시면 줍히리이다.”

하여거늘 상이 그 방문을 보시고 도신(朝臣)을 모하 의논하시니 계신 왕,
“이제 그 도적을 줍으려 하다가 줍지 못함고 도로혀 병조판서 제슈하시문
불가스문어인국(不可使聞於隣國)이로쇼이다.”

… 계신 중 일인이 주왕,
“그 길동의 원이 병조판서를 한번 지니면 도선(朝鮮)을 떠나니라 하오니, 한번
제 원을 풀면 제 스스로 사은(謝恩)하오리니, 이 씨를 타 줍으미 조화가 하나
이다.”

상이 오히려 너이사 즉시 홍길동으로 병조판서를 제슈하시고 사문의 방을 붓치
니라.<홍길동전> 18장 뒷면~19장 뒷면>

비록 조정을 압박해서 받아낸 것이기는 하지만, 홍길동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서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직위에까지 오르는 데 성공했다. 홍길
동이 병조판서에 임명된 점은 그가 이룩한 하나의 성취이자 승리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홍길동이 서두에서부터 제기된 조선의 적서차별 문제를 해결
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홍길동은 병조판서의 직임을 수행할 의
도가 없었으며, 수행할 수도 없었다. 애초에 조선을 떠나는 것을 조건으로
병조판서 벼슬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조정에서도 홍길동을 사로잡기 위한
계략의 일환에서 그에게 벼슬을 제수한 것이지, 그의 능력을 활용하려는 생
각은 전혀 없었다. 결국 홍길동은 벼슬을 제수받자마자 공중으로 몸을 솟
구쳐 사라져 버리기에, 그의 재능은 쓰이지 못한다. 병조판서를 둘러싼 조
정과의 갈등은 표면상 홍길동의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
로는 그가 자연스럽게 조선사회를 떠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주는 기능
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을 떠난 홍길동은 바다 속 섬에 자리를 잡은 후, 울도국을 정벌해 왕이 된다. 홍길동의 울도국 정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는 울도국을 홍길동의 이상국가 또는 작자 허균의 사회사상을 반영한 공간으로 해석한다.¹⁶⁾ 또 이는 “신화적 결말의 전형적 사례”로서 ‘영웅의 일생’ 구조에서 말하는 ‘성공한 결말’이므로 <홍길동전>이 영웅소설 유형에 속한다는 근거로 거론된다.¹⁷⁾ 과연 <홍길동전>의 결말은 영웅소설의 ‘승리의 영광’에 해당되는 것일까?

물론 홍길동은 울도국이라는 나라를 정벌해 왕이 되었으니, 이것으로 조선에서 차별받던 설움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홍길동 개인의 차원에서 설움을 해소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홍길동은 울도국의 왕이 되었지만, 조선사회의 적서차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한편 조선사회의 모순에 대한 대안으로 홍길동이 울도국을 세웠다고 볼 수도 있으나, 울도국이 조선사회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자 이상국가로 제시되었다고 보기에는 그에 관한 서술이나 묘사가 지나치게 소략하다. <홍길동전>에는 울도국이 적서차별 문제를 해결한 곳인지도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울도국의 왕’이라는 서술 이면에 함축된 의미가 무엇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일견 주인공의 승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병조판서 제수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조선사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울도국은 홍길동이 조선사회라는 현실의 벽을 도저히 넘을 수 없었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도피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홍길동전>은 주인공의 좌절과

16) 울도국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현국, 「<홍길동전>에 있어서 울도국의 위상과 성격」, 『문학과 언어』 8, 문학과 언어연구회, 1987; 서종문·김석배·장석규, 「<홍길동전> ‘울도국’의 생성과 그 의미」, 『국어교육연구』 27, 국어교육학회, 1995; 이정남, 「<홍길동전> 연구: 울도국이 지니는 의미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최윤희, 「고전소설의 바다 건너 신세계 지향과 의미: <홍길동전>과 <수호후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17) “이와 아울러 울도국이라는 설정도, 비록 소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신화의 잔재로 볼 수 있다. 울도국에서 전개되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은 그것대로 심각한 양상을 띠지 않고 홍길동의 승리를 장식해 준다는 점이 신화적이다. 신화가 남긴 이러한 흔적은 자아와 세계의 소설적 대결을 철저하게 구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므로, 다음 시기의 소설에서 극복되리라고 생각한다.” 조동일, 앞의 책, 261면.

도피, 그리고 울도국에서의 후일담으로 끝맺는 작품이 된다.¹⁸⁾

이러한 관점에서 안성판19장본의 결말은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진 <홍길동전>의 판각본은 경판본과 안성판본, 완판본 등 8종이다.¹⁹⁾ 이들의 출판연대는 미상이나, 대체로 19세기 후반에서 크게 소급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⁰⁾ 이들 판본은 울도국 정벌을 다룬 결말 부분의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경판본 등 7종의 판본에서 홍길동은 울도국의 왕이 된다. 그런데 안성판19장본은 홍길동이 조선에서 병조판서 벼슬을 받은 후 자신의 무리와 함께 ‘해도(海島)’로 떠나고, 부친의 산소를 모셔온 후, 아무도 그들의 행적을 알 수 없었다는 ‘부지소종(不知所終)’의 방식으로 끝맺고 있다.

각설, 홍길동이 부친 산소를 제 썩히 되시고 조석제전(朝夕祭奠)을 지성으로 지너니 제인이 탄복 아니 리 업더라. 세월이 여류하여 삼상(三喪)을 마치고 무예를 연습하며 농업에 힘쓰니 슈년 지너미 병정양족(兵精糧足)하여 뉘 알니 업더라.²¹⁾

18) 일부 선행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홍길동전>을 ‘비극적인 영웅’의 작품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관련 연구로 다음을 들 수 있다. 김명순, 『비극적 구조로 본 <홍길동전>』, 『한국학논집』 1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83; 이해화, 『<아기장수 전설>의 신고찰: 한국적 초인의 비극과 그 배경』, 『한국민속학』 16, 한국민속학회, 1983; 강현모, 『길동의 영웅적 성격: 신화적 영웅과 비극적 영웅의 중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19, 한국언어문화학회, 2001.

19) 지금까지 알려진 <홍길동전>의 판각본은 경판30장본, 24장본, 23장본, 21장본, 17장본, 안성판23장본, 19장본, 완판36장본의 8종이다. 여러 이본 중 무엇이 선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정규복은 한남서림본이 원작에 가까우며 나머지 이본들은 한남서림본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임형택은 야동신간본과 한남서림본, 완판본을 중요한 이본으로 꼽았으며, 송성욱은 야동신간본을 가장 앞선 시기의 판본으로 보았다. 조용호는 한문본 <홍길동전>이 최고본이자 최선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윤석은 필사본인 김동욱89장본이 원형에 가깝다고 보았다. 정규복, 『<홍길동전> 이본고』 1·2, 『국어국문학』 48·51, 국어국문학회, 1970·1971; 임형택, 앞의 글; 송성욱, 『<홍길동전> 이본 신고』, 『관악어문연구』 1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8; 조용호, 『<홍길동전> 이본의 한 연구: 한문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시론』, 『서강어문』 9, 서강어문학회, 1993; 이윤석, 『<홍길동전>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7.

20) 현존하는 <홍길동전>의 이본들은 모두 19세기 후반 이후에 만들어졌으며, 연대를 17, 8세기로 소급할 수 있는 이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윤석은 이 점에 주목해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과 현존하는 <홍길동전> 사이의 연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윤석, 위의 책.

21) 김동욱·W. E. Skillend·D. Bouchez 공편, 『고소설판각본전집』 3권, <홍길동전>, 1973.

위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안성판19장본 <홍길동전>에는 아예 울도국을 세우는 대목 자체가 없다. 이것이 판본의 누락으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²²⁾ 홍길동이 조선을 떠나 행적을 감추는 장면으로 끝맺는 안성판19장본의 결말은 오류나 착오가 아니라 의도된 것이다.

안성판19장본을 통해 홍길동의 최후를 ‘울도국왕’이 아니라 ‘부지소종’으로 수용했던 독자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안성판19장본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안성판19장본 이외의 판각본에는 모두 울도국 장면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비범한 인재였던 홍길동이 조선을 떠나 바다 속 섬으로 사라지는 안성판19장본의 결말은 어딘가 아쉬운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안성판19장본의 결말도 나름의 완결성을 지니며, 오히려 다른 판본에 비해 서사의 통일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다.²³⁾

지금까지 살펴본 <홍길동전>의 결말 부분이 지닌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홍길동이 병조판서에 제수되는 장면은 주인공의 성취나 승리로 해석하기 어렵다. 홍길동은 조선을 떠나는 조건으로 벼슬을 받았으며, 조정에서도 벼슬을 미끼로 홍길동을 잡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병조판서 제수 대목은 홍길동이 조정을 굴복시킬 정도의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적서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조선을 떠나게 되는 장면으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 홍길동이 울도국을 정벌해 왕이 되는 대목 역시 ‘영웅의 일생’ 구조의 ‘승리의 영광’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작품에는 홍

444면.

22) 송성욱, 앞의 글, 118~120면; 이현국, 앞의 글, 158면.

23) 국문소설이 필사 과정의 변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길동전>의 울도국 대목 역시 허균의 원작에는 없었는데 후대에 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재수는 <홍길동전>의 병판제수 이후 서사가 “작품의 통일성을 결정적으로 파괴했을 뿐 아니라 주체에 대해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를 가져온다.”며 이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형택은 울도국 정벌 장면이 군담소설처럼 서술된 점이나 홍길동의 최후가 신선이 되어 사라지는 것으로 서술된 부분 등이 “출판업자들의 천박한 상업주의”에 의해 홍미본위로 부연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김동욱은 <홍길동전>의 결말 부분이 “다른 교산소설과 비교하여 볼 때, 보다 후기적이고 완결적”이므로 “울도국 이후의 전개는 후인의 가탁”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중균은 『해동이적』 보의 기록 등을 근거로 울도국 대목이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재수, 앞의 책, 165면; 임형택, 앞의 글, 479면; 김동욱, 앞의 글, 1981, 96면; 김중균, 『해의개척 대도설화의 소설 유입 양상과 의미: <허생전>과 <홍길동전>의 경우』, 『어문연구』 50, 어문연구학회, 2006, 27~28면.

길동의 울도국 정벌과 별개로 조선의 적서차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울도국을 조선사회에 대한 대안 또는 이상국가로 보기에는 울도국에 관한 서술과 묘사가 부족하다. 특히 안성판19장본처럼 홍길동이 조선을 떠나 바다 속 섬으로 간 이후 ‘부지소중’의 결말로 작품을 끝맺는 판본도 존재한다. 안성판19장본 <홍길동전>은 현실에서의 좌절과 도피라는 결말 부분의 비극적 성격이 뚜렷하게 부각된 이본이라고 할 수 있다.

3. <홍길동전>의 유형 검토

앞 장에서 주인공의 인물형상과 결말 부분의 사건 전개를 살펴본 결과, <홍길동전>의 구성이 대다수 영웅소설과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길동전>의 성격이 다른 영웅소설과 이질적이라는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인식했던 문제였다. 일부 선행연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영웅소설의 하위유형’ 여럿을 설정한 다음, 그 중의 하나에 <홍길동전>을 귀속시켜 이 문제를 설명하기도 했다.²⁴⁾

그런데 이렇게 영웅소설의 하위유형을 설정하는 방식이 과연 유형 분류의 원칙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영웅소설의 유형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작품을 영웅소설의 ‘특이한’ 하위유형으로 설명하기 시작한다면, 거의 모든 고전소설을 영웅소설의 하위유형으로 귀속시키는 작업도 가능해 질 것이다. 영웅소설은 “(가)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다. (나) 비정상적으로 잉태되거나 출생했다. (다)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다. (라)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 (마) 구출·양육자를

24) 박일용은 영웅소설의 유형을 시대별로 네 단계로 나누었는데, 넷째 단계로 ‘홍길동전 유형’을 설정한 바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 박일용은 영웅소설의 하위유형으로 ‘민중적 역사영웅소설’과 ‘통속적 창작영웅소설’을 설정하고, <홍길동전>은 <최고운전>, <전우치전>, <임경업전>과 함께 ‘민중적 역사영웅소설’에 해당한다고 논했다. 임성래는 영웅소설의 하위유형으로 ‘체제개혁형’, ‘예정성취형’, ‘능력본위형’, ‘인륜수호형’ 영웅소설을 설정하고, <홍길동전>은 ‘체제개혁형’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박일용, 『영웅소설의 유형변이와 그 소설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임성래, 『영웅소설의 유형 연구』, 태학사, 1990; 박일용, 『영웅소설 하위 유형의 이념 지향과 미학적 특징』, 『국문학연구』 7, 2002, 125~152면.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 (바)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혔다. (사)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서 승리자가 되었다.”의 유형구조로 이루어진 작품을 지칭하는 개념이다.²⁵⁾ 영웅소설의 하위유형은 영웅소설의 유형구조와 부합하면서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 작품들을 분류하는 개념이 되어야지, 영웅소설의 유형구조와 부합하지 않는 작품들을 포괄하기 위한 개념이 될 수는 없다.

한편, 앞 장에서 살펴본 <홍길동전>의 구성은 오히려 ‘일사소설(逸士小說)’ 유형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일사소설의 유형구조는 “(가) 불행한 처지에서 태어났다. (나) 겉으로는 평범했으나, 사실은 비범했다. (다) 여러 가지 비범한 행적이 있었으나, 세상에서 쓰이지 못했다. (라) 결국 불행하게 죽거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²⁶⁾로 정리된다.

조동일은 <전우치전>을 일사소설의 대표적 작품으로 꼽았다. 또 허균이 지은 <엄처사전(嚴處士傳)>, <손곡산인전(孫谷山人傳)>, <장산인전(張山人傳)>, <남궁선생전(南宮先生傳)>, <장생전(蔣生傳)>(이하 허균의 다섯 전)이 “모두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불우하게 일생을 마친 사람의 이야기”²⁷⁾로, 비록 ‘전(傳)’의 외양을 지니고 있으나 소설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일사소설’이라 칭한 바 있다.²⁸⁾

여기에서는 먼저 영웅소설과 일사소설의 유형상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참고하여 <홍길동전>의 작품 유형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영웅소설은 판본이 가장 많은 <소대성전>과 <유충렬전>, <조웅전>을 위주로 살피고,²⁹⁾ 일사소설은 <전우치전>³⁰⁾과 허균의 다섯 전을 중심으로 살핀다.

25) 조동일, 앞의 책, 246면.

26) 위의 책, 239면.

27) 위의 책, 238면.

28) 조동일은 허균의 다섯 전을 소설로 보았지만 이들을 소설이 아닌 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다섯 전 중 일부만 소설로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허균의 다섯 전이 어떤 장르에 속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는 본고의 논의 범위를 넘어선다. 본고는 일단 조동일의 견해를 따르되, 조동일이 일사소설로 거론한 작품들 중 소설 장르임이 분명한 <전우치전>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켜 논의를 보완하고자 한다. 허균의 다섯 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입장 차이에 관해서는 김영연의 선행연구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조동일, 위의 책, 282면; 김영연, 「허균 ‘五傳’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3면.

29) 영웅소설 개념을 최초로 규정한 조동일의 연구에서도 <홍길동전>과 <소대성전>, <유충렬전>, <조웅전> 세 작품을 주로 비교했다. 이 세 작품의 출간 횟수가 여러 영웅소설 중에서도 가장 많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본고도 이 세 작품을 주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소대성

3.1. 영웅소설과 일사소설

영웅소설은 천상계의 질서가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다. <소대성전>과 <유충렬전>, <조웅전>에서 주인공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운명을 타고난다. 작품에서의 위기는 조정의 반역자나 오랑캐의 침입에 의해 촉발되는 것인데, 이는 애초부터 천명에 의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며, 주인공이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는 것 또한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다.³¹⁾ 이처럼 영웅소설에는 외적의 침입 또는 내부의 반란 등 주인공이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해결 방법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천상적 질서의 존재로 인해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나름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게 된다. <소대성전>과 <유충렬전>, <조웅전>의 주인공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기 전에는 무력한 존재다. 그러나 조력자를 만나 도술을 배우고 무기와 갑옷, 용마, 부적 등을 받아 비로소 영웅적인 활약을 펼치게 된다.³²⁾ 이들 작품에서의 노승이나 도사들은 모두 천명에 의해 주인공을 도우므로,

전>, <유충렬전>, <조웅전> 모두 본고에서 다루는 부분의 이본 간 차이는 크지 않다. 본고는 완판43장본 <소대성전>, 완판본 <유충렬전>, 완판104장본 <조웅전>을 참고했다.

30) <전우치전>의 이본은 크게 보아 전우치가 중국에서 활약하는 박순호본 계열 <전우치전>과 그렇지 않은 일사본 계열 <전우치전>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는 일사본 계열 <전우치전>을 중심으로 한다.

31) <소대성전>에서 흉노와 서유이 침입해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데, 이는 천상계에서 태을성과 익성이 싸웠기 때문이다. 익성은 북방 오랑캐의 별이며, 옥황상제는 익성을 별하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소대성이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은 천상계에서부터 이미 정해진 일이다. <유충렬전>에서 주인공 유충렬은 자미원 장성의 환생으로, 태어날 때부터 팔뚝에 '대명국 대사마 대원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유충렬의 적 정한담은 천상 익성의 환생으로, 둘 사이의 대결은 천상계에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다. <조웅전>은 서두에 천상계에 대한 서술이 없으나, 작품 도중에 송의 문황제와 여러 충신의 혼령이 모여서 조웅의 위기를 걱정하고 송실(宋室)의 회복을 위해 조웅을 도와주는 대목이 있다. 또 화산도사와 철관도사가 등장해 조웅에게 천명을 알려주고, 하늘이 낸 용마와 보검을 전해주는 등 천상계와 지상계를 매개하는 초월적인 조력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32) <소대성전>의 청룡사 노승은 소대성에게 '철성검'이라는 보검을 준 다음 사라진다. 이후 소대성은 이승상의 혼령을 만나 '보신갑'을 얻고, 옥포산 산신으로부터 하루 만 리를 달릴 수 있는 '청룡마'를 받는다. <유충렬전>에서는 백룡사 노승이 유충렬과 함께 지내며 병사와 불경, 기이한 술법을 가르쳐 준다. 이후 간신 정한담, 최일귀가 부적, 흉노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백룡사 노승은 유충렬에게 '장성검'과 '일광주', '신화경'을 주고, 송림촌 동장자는 '사송천사마'라는 이름의 용마를 준다. <조웅전>에서 월경대사는 도피생활 중인 조웅과 모친이 숨어 지낼 곳을 마련해주며, 조웅에게 '신통한 술법'도 가르쳐 준다. 조웅은 자라서 철관도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육도』, 『삼략』과 천문도, 술법을 배운다. 또 화산도사는 조웅을 찾아와 신이한 보검인 '조웅검'을 준다.

주인공과 천상계를 매개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³³⁾ 가끔 주인공이 선택의 기로에 서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조력자가 나타나 그를 정해진 운명에 맞게끔 인도해 주기도 한다.³⁴⁾ 이 때문에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국난을 극복하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 내면의 주체적인 동기는 거의 서술되어 있지 않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천명에 순응하는 유형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영웅소설의 결말은 주인공의 승리로 끝나는데,³⁵⁾ 이러한 결말은 천상계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다. 주인공의 삶은 천상계의 질서에 의해 정해져 있었던 천명을 실현해 나가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실현한 주인공은 지상계에서 정해진 수명을 채운 후 천상계로 돌아간다. 이처럼 영웅소설의 작품세계는 비록 일시적인 위기가 닥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천상계의 질서에 의해 그 완전함이 보장되어 있는 ‘반신화적(半神話的)’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³⁶⁾

영웅소설은 천상계의 질서가 하나의 초월적인 좌표이자 확고한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에 비해, 일사소설은 그러한 질서나 기준을 찾아보기 어렵다. 허균의 다섯 전과 <전우치전>은 부조리한 세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모순을 해결할 방법이나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모순적이고 ‘전망 없는 세계’³⁷⁾로 이루어져 있다. 조동일은 일사소설의 주인

33) 주인공이 조력자를 통해 도술을 배우는 화소는 거의 모든 창작군담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김동욱은 도술화소가 나오는 창작군담소설 27편을 살폈는데, 27편 전부 도술을 가르쳐 주거나 도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무기를 주는 조력자가 등장한다. 김동욱, 앞의 글, 2009.

34) <소대성전>에서 소대성이 호왕의 계약에 빠졌을 때에는 화덕진군이 나타나 그를 구해준다.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이 정한담의 계약에 속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와 계약을 알려준다. <조웅전>에서 조웅 역시 송의 문황제와 노인 등 천상적 존재들이 주인공을 도와준다.

35) “영웅소설에 설정된 자아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세계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다. 자아와 세계의 대결은 역설이나 반어로 나타나 있지 않고 개방적이고 발전적인 양상을 지니고 있으며, 자아가 거둔 승리는 실제적인 것이다.” 조동일, 앞의 책, 283면.

36) “신화에서는 화합이 신화적 질서인데, 소설에서는 신화적 질서와 같은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설에서의 화합은 소설적 진실성이고 분열된 시대의 총체성이다. 영웅소설은 분열된 시대의 총체성을 향한 계속적인 추구이다.” 위의 책, 257면.

37) 김영연, 앞의 글, 25~64면.

공이 사회의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모순”³⁸⁾과 맞서 싸우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망’이 결여되어 있기에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일사소설의 주인공이 불우한 결말을 맞기는 하지만, 그 성격은 영웅소설의 주인공에 비해 오히려 능동적이고 독립적이다. 앞서 살펴본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정해진 천명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며, 조력자의 조언과 가르침에 크게 의지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다소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사소설의 주인공은 이와 다르다. <엄처사전>의 엄충정, <손곡산인전>의 이달, <장산인전>의 장한웅, <장생전>의 장생은 모두 독학(獨學)으로 자신의 재주를 이룬 인물이다.³⁹⁾ <남궁선생전>의 남궁두는 스승으로부터 신선술을 배우지만 실패하고, 지상선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평범하게 사는 길을 선택한다. <전우치전>의 전우치도 혼자 힘으로 여우의 천서를 탈취해 이를 공부했으며, 과거를 준비하는 대신 도술을 부려 노모를 봉양하기로 결심한다. 이처럼 일사소설은 주인공이 자신의 삶과 재능에 대해 보다 독자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⁴⁰⁾ 그들에게는 애초부터 스승이 없거나, 스승이 있더라도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성향이 두드러진다.

일사소설은 주인공이 사회와의 불화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거나, 신선과 같이 초월적 세계로 떠나거나, 아니면 간 곳을 확실히 알 수 없는 ‘부지소종(不知所終)’의 상태로 끝맺는다. 주인공의 좌절과 도피로 귀결되는 일사소설의 결말은 주인공과 작품세계의 ‘완강한 대결’이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⁴¹⁾ 이는 대다수 영웅소설의 주인공이 투쟁을 성공적으

38) “일사소설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주인공의 양면성이다. 즉 길으로는 평범한 인물이지만 사실은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중략)… 비범한 내면적 자아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세계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모순을 지니고 있으며, 자아와 세계의 대결은 불가피하게 된다.” 조동일, 앞의 책, 240면.

39) <엄처사전>, <손곡산인전>, <장생전>에는 주인공의 스승에 대한 서술이 없으며 그들이 스스로 재주를 이룬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장산인전>의 장한웅은 지리산의 이인을 만나 연마법을 배우기는 했으나, 그 전부터 부친이 남겨 둔 <옥추경>과 <운화현추>를 혼자 수만 번 읽어 귀신을 부릴 수 있었다.

40) “이들은 모두 탁월한 재능을 지닌 인물인 동시에, 자기 재능의 사용 여부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능동성을 지니고 있다.” 김영연, 앞의 글, 25면.

로 마치고 승리하는 것과 상반되는 결말이다.

3.2. <홍길동전>의 일사소설적 성격

<홍길동전>의 구성은 영웅소설 보다 오히려 일사소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홍길동전>의 구성을 ‘주인공의 인물 형상’과 ‘결말 부분의 사건 전개’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인공 홍길동은 천상계에서 적당한 초월적 존재가 아니며, 명문가의 자제이지만 서얼 출신이라서 미천한 신분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영웅소설은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인공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운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초월적 존재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홍길동전>에는 천상계의 존재가 뚜렷하지 않으며, 홍길동은 서얼 출신이라는 자신의 천한 신분을 고민하는 불행한 처지의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선행연구는 홍길동이 명문거족 홍판서의 자제라는 이유로 홍길동을 영웅소설 유형의 ‘(가)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 ‘(나) 비정상적으로 잉태되거나 출생’한 경우라고 보았다.⁴²⁾ 그러나 홍길동의 모계 혈통은 미천하므로 그를 ‘고귀한 혈통’으로 볼 수 없으며, 작품 속에서도 홍길동은 스스로의 천한 신분에 대해 심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 ‘영웅의 일생’ 구조를 지닌 것으로 언급된 다른 영웅소설에서는 주인공이 <홍길동전>처럼 미천한 신분의 소유자로 형상화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일사소설로 언급된 <손곡산인전>의 이달이 양반가의 서얼이라는 점에서 홍길동과 유사하다. 일사소설의 유형구조는 ‘(가) 불행한 처지에서 태어났다.’로 시작되는데, <홍길동전>의 서두에 묘사된 주인공의 인물형상은 영웅소설의 ‘고귀한 혈통’보다 일사소설의 ‘불행한 처지’에 가깝다.

다음으로 홍길동은 자신의 신분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을 빚다가 집을 떠나는 인물로 서술되어 있다. 다른 영웅소설의 주인공도 어려서 집을 떠나 고난을 겪는다는 점은 비슷하다. 그러나 다른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이 겪는

41) 조동일은 일사소설이 신선계를 지향하는 결말로 끝맺는 점에 대해 “허균이 쓰고자 한 것은 신선담이 아니고, 세계를 거부하고자 하는 자아의 의지와 이것으로 인해서 생긴 자아와 세계의 완강한 대결이다.”고 지적했다. 조동일, 앞의 책, 240~241면.

42) 조동일, 위의 책, 289면.

고난은 처음부터 천명에 의해 정해져 있었으며, 그러한 고난의 해결 역시 예정되어 있다. 영웅소설에는 천상계의 질서가 초월적인 좌표이자 기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에, 주인공에게 주어진 문제는 일시적인 고난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영웅소설에서는 주인공과 천상계를 매개하는 조력자가 등장한다. 그들은 주인공에게 도술을 가르쳐주고, 위기가 닥치면 천명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즉 영웅소설에는 주인공의 고난에 대한 해결 방안 및 결과가 작품 서두에서부터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서사가 전개되는 도중에도 초월적 질서가 지속적으로 개입한다.

이와 달리 홍길동이 봉착한 적서차별 문제는 당시 조선사회의 모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영웅소설의 주인공에게 주어진 고난과 성격이 다르다. <홍길동전>의 세계는 문제에 대한 해법과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사소설의 ‘전망 없는 세계’에 가깝다. 그리고 홍길동은 당시 지배질서의 모순과 맞서 싸운다는 점에서, 다른 영웅소설의 주인공과 달리 ‘체제비판적 인물’⁴³⁾의 성격을 지닌다. 또 영웅소설에는 ‘(마) 구출·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주인공은 조력자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홍길동에게는 그러한 조력자가 없으며, 도술도 독학으로 터득한다. 일사소설의 주인공에게는 애초부터 스승이 없거나, 스승이 있더라도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주체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데, 홍길동의 인물형상도 이와 유사하다.

<홍길동전> 결말 부분의 사건 전개가 지닌 특징 역시 다른 영웅소설과 차이를 보인다. 홍길동은 병조판서에 제수되기는 하지만, 이를 주인공의 성취나 승리로 보기 어렵다. 홍길동은 조정과 갈등을 빚는 관계였으며, 조선을 떠나는 조건으로 벼슬을 받아냈기 때문이다.⁴⁴⁾ 병조판서 벼슬은 홍길동

43) 홍길동의 체제비판적 성격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김열규는 홍길동을 ‘반체제적 인물’이자 ‘악인’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열규, 『이조소설에 있어서의 악인형의 검토』, 『고전문학연구』 1, 한국고전문학회, 1971.

44) 본고의 주요 자료인 경판24장본에는 없지만 다른 판각본에는 홍길동의 ‘개안거부(開眼拒否)’ 삽화가 존재한다. 개안거부 삽화는 홍길동이 조선을 떠나기 직전 임금에게 하직인사를 하면서 왕이 놀란다는 이유로 눈을 뜨지 않는 대목을 말한다. 이 삽화는 홍길동과 임금의 갈등이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대목으로 논의된 바 있다. 송성욱, 『<홍길동전>의 자장』, 『성심어문논집』 22, 성심어문학회, 2000, 215면.

이 조선을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게 하는 명분을 제공해 주는 측면이 있다.

홍길동이 울도국왕이 되는 대목 역시 ‘영웅의 일생’ 구조의 행복한 결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른 영웅소설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주인공은 대개 왕에 봉해지거나 등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천상계로 돌아간다. 이는 영웅소설의 유형구조에서 ‘(사)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서 승리자가 되었다.’의 단계에 해당된다. 그런데 <홍길동전>에서 제기된 조선의 적서차별 문제는 작품이 끝날 때까지 해소되지 않았으며, 울도국을 이상국가로 보기에는 그에 관한 서술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홍길동전>의 울도국은 오히려 일사소설의 ‘막연한 이상향’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허균이 지은 <장생전>에서 장생은 홍세희에게 “동쪽 바다 속의 어떤 나라를 찾아 간다(向東海覓一國土去矣).”는 말을 남기고 종적을 감추는데, <홍길동전>의 울도국 역시 장생이 말한 ‘동쪽 바다 속의 어떤 나라’와 같은 막연한 이상향의 맥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울도국의 왕’이라는 자리는 주인공이 조선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선택하게 된 일종의 ‘도피처’로 볼 수 있다. 또 안성판19장분처럼 울도국에 대한 언급 없이, 홍길동이 조선을 떠나 ‘부지소중’이 되었다는 결말로 작품을 끝맺는 판본도 존재한다. 안성판19장본은 ‘(라) 결국 불행하게 죽거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일사소설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 <홍길동전> 이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홍길동전>에 영웅소설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전혀 없다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르다.⁴⁵⁾ 허균이 지은 다섯 전은 모두 일사소설 유형에 속하는데, <홍길동전>을 이들과 비교해 보면 주인공의 도적 활동이나 후반부의 군담 등 보다 사회적이고 통속적인 면이 강화되어 있다.⁴⁶⁾ 또한 일사소

45) 오늘날 전해지는 <홍길동전>이 원본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전승을 거치며 원본에는 없었던 여러 요소가 유입되었고 볼 수도 있다. 박일용은 <홍길동전>에 중층적인 성격이 있으며, 따라서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군도담(群盜談)’의 ‘거시구조’ 및 ‘포괄적 차원의 세계관’과 ‘일생담’의 서술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문제제기는 매우 설득력이 있으나, 본고는 <홍길동전>의 근원을 군도담이 아니라 일사전(逸士傳)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박일용의 연구와 견해를 달리한다. 박일용, 앞의 글, 1994.

46) <홍길동전>의 이러한 통속적인 부분은 앞서 각주22번에서 언급했듯 후대에 부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설은 대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홍길동은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⁴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길동전>은 <소대성전>, <유충렬전>, <조웅전>과 같은 영웅소설보다 <전우치전>과 같은 일사소설과 더 유사하다는 것이 본고의 판단이다. <홍길동전>을 영웅소설 유형으로 귀속시킨 선행연구의 결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홍길동전>은 ‘영웅의 일생’ 구조를 지니고 있는 영웅소설 유형의 작품으로 거론되어 왔다. 본고는 <홍길동전>을 과연 영웅소설 유형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작품의 구성을 주인공의 인물 형상 및 결말 부분의 사건 전개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홍길동전>에는 천상계의 존재가 뚜렷하지 않으며, 주인공 또한 적당한 인물이 아니었다. 홍길동은 독학으로 도술을 터득하며, 스승이나 조력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능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주도해 나간다. 그러나 홍길동은 끝내 적서차별로 대표되는 조선사회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조선을 떠나게 된다. 이러한 <홍길동전>의 주인공 형상과 결말은 일사소설과 유사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영웅소설 유형으로 주로 논의되었던 <홍길동전>의 유형 문제에 대해 일사소설의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홍길동전>이 일사소설 유형의 작품이라면, <홍길동전>은 영웅의 승리로 끝맺는 행복한 결말의 작품이 아니라 주인공의 좌절과 도피로 끝맺는 비극적인 작품이 된다. 또한 일사소설은 한문학 장르인 일사전에서 유래한 초기소설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는 <홍길동전>의 근원을 중국소설 <수

47) <장생전>이나 <전우치전>의 주인공도 유명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홍길동만큼 유명하지는 않다. 다만 홍길동의 인지도가 후대로 올수록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으며, 주인공의 유명세 여부는 일사소설의 유형 분류 기준이 아니기에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호전>이나 우리의 국조신화, 군도담 등으로 지목한 기존의 관점과도 구별된다.

본고는 <홍길동전>을 영웅소설로 보는 통설에 문제를 제기한 시론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만일 본고의 논의가 타당하다면, 일사소설에 속하는 작품은 <홍길동전> 외에 무엇이 있으며, 그 유형상 특징은 어떠한지와 같은 문제가 뒤이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영웅의 일생’ 구조가 갱신될 필요는 없는지, 영웅소설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타당한 개념인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1. 자료

<홍길동전> 경판24장본.

<홍길동전> 안성판19장본.

박영목 외 14인, 『중학교 국어(교사용 지도서)』 2, 천재교육, 2013.

윤여탁 외 21인, 『중학교 국어(교사용 지도서)』 2, 미래엔, 2013.

한철우 외 17인, 『중학교 국어(교사용 지도서)』 2, 비상교육, 2013.

2. 단행본

박일용,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2008.

이운석, 『<홍길동전>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7.

이재수, 『한국소설연구』, 선명문화사, 1969.

임성래, 『영웅소설의 유형 연구』, 태학사, 1990.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9.

3. 논문

강현모, 「길동의 영웅적 성격: 신화적 영웅과 비극적 영웅의 중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19, 한국언어문화학회, 2001, 219~237면.

김동욱, 「<홍길동전>의 비교문학적 고찰」, 『허균의 문학과 혁신사상』, 신동욱 편, 새문사, 1981, 1부 86~99면.

김동욱, 「군담소설의 도술화소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명순, 「비극적 구조로 본 <홍길동전>」, 『한국학논집』 1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83, 157~175면.

김열규, 「이조소설에 있어서의 악인형의 검토」, 『고전문학연구』 1, 한국고전문학회, 1971, 5~17면.

김영연, 「허균 ‘五傳’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김일렬, 「<홍길동전>의 불통일성과 통일성」, 『어문학』 17, 한국어문화회, 1972, 59~71면.

김일렬, 「<홍길동전>의 구조와 의미」, 『국어국문학』 99, 국어국문학회, 1988, 89~111면.

김종균, 「해외개척 대도설화의 소설 유입 양상과 의미: <허생전>과 <홍길동전>의

- 경우, 『어문연구』 50, 어문연구학회, 2006, 5~35면.
- 김현룡, 『<최고운전>의 형성 시기와 출생담고』,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1~28면.
- 김현양, 『“영웅군담소설”의 연구사적 조망』, 『민족문학사연구』 46, 민족문학사학회, 2011, 168~195면.
- 박일용, 『영웅소설의 유형변이와 그 소설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박일용, 『<홍길동전>의 문학적 의미 재론』, 『고전문학연구』 9, 한국고전문학회, 1994, 265~292면.
- 박일용, 『영웅소설 하위 유형의 이념 지향과 미학적 특징』, 『국문학연구』 7, 2002, 12 5~152면.
- 박일용, 『<최고운전>의 창작 시기와 초기본의 특징』,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85~115면.
- 박재민, 『허균 작 <홍길동전>의 복원에 대한 시론』, 『한민족어문학』 65, 한민족어문학회, 2013, 267~308면.
- 서대석, 『영웅소설의 전개와 변모』, 『고소설사의 체문제』, 집문당, 1993, 331~344면.
- 서인석, 『영웅소설 연구사의 담론들: 논쟁과 편견』,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41~70면.
- 서종문·김석배·장석규, 『<홍길동전> ‘율도국’의 생성과 그 의미』, 『국어교육연구』 27, 국어교육학회, 1995, 105~158면.
- 송성욱, 『<홍길동전> 이본 신고』, 『관악어문연구』 1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8, 105~125면.
- 송성욱, 『<홍길동전>의 자장』, 『성심어문논집』 22, 성심어문학회, 2000, 197~221면.
- 안창수, 『반항과 순응의 양상을 통해서 본 <홍길동전>』, 『어문학』 48, 한국어문학회, 1986, 71~93면.
- 엄기주, 『<홍길동전>의 구조와 의미』, 『수선논집』 16,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1, 47~76면.
- 윤주필, 『중세 지식인의 존재 방식과 <홍길동전>』, 『고소설연구』 7, 한국고소설학회, 1999, 5~38면.
- 이강욱, 『<홍길동전>의 체문제와 그 해결』, 『한국고전소설론』, 한국고전소설편찬위원회 편, 새문사, 1990, 156~175면.
- 이문규, 『<홍길동전>의 성격』, 『한국문학사의 쟁점』, 성산 장덕순선생 정년퇴임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편, 집문당, 1986, 368~380면.
- 이상구, 『<홍길동전>의 서사전략과 작가의 현실인식』, 『국어교육연구』 52, 국어교육학회, 2013, 309~352면.

- 이윤석, 「<홍길동전> 해석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9, 열상고전연구회, 1996, 193~213면.
- 이윤석, 「<홍길동전> 작자 논의의 계보」, 『열상고전연구』 36, 열상고전연구회, 2012, 381~414면.
- 이정난, 「<홍길동전> 연구: 율도국이 지나는 의미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현국, 「<홍길동전>에 있어서 율도국의 위상과 성격」, 『문학과 언어』 8, 문학과 언어연구회, 1987, 137~164면.
- 이혜화, 「<아기장수 전설>의 신고찰: 한국적 초인의 비극과 그 배경」, 『한국민속학』 16, 한국민속학회, 1983, 265~285면.
- 임형택, 「<홍길동전>의 신고찰」 상, 『창작과비평』 11권 4호, (주)창비, 1976, 475~490면.
- 임형택, 「<홍길동전>의 신고찰」 하, 『창작과비평』 12권 1호, (주)창비, 1977, 127~138면.
- 장효현, 「<홍길동전>의 생성과 유전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29, 국어국문학회, 2001, 347~369면.
- 정규복, 「<홍길동전> 이본고」 1, 『국어국문학』 48, 국어국문학회, 1970, 1~43면.
- 정규복, 「<홍길동전> 이본고」 2, 『국어국문학』 51, 국어국문학회, 1971, 51~75면.
-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적 전개」, 『동아문화』 10,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71, 165~214면.
- 조용호, 「<홍길동전> 이본의 한 연구: 한문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시론」, 『서강어문』 9, 서강어문학회, 1993, 127~166면.
- 최윤희, 「고전소설의 바다 건너 신세계 지향과 의미: <홍길동전>과 <수호후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143~173면.

A study on the type of Honggildongjeon

Kim, Dong-Wook

Honggildongjeon has been cited as a work of heroic novels that have a 'life of a hero' structure. However, Honggildongjeon is heterogeneous with heroic novels. Heroic novels consist of a dual structure of Cheonsanggye(celestial world) and Jisanggye(terrestrial world). The protagonist of heroic novels comes down from Cheonsanggye, and reaps victory with the help of assistants who pass the celestial order. In contrast, Honggildongjeon has no description of Cheonsanggye. The protagonist Honggildong is not a character from Cheonsanggye, and the work has no celestial assistant helping him. In the ending, Honggildong fails to solve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in the country, and leaves for islands across the sea. The protagonist and the ending of Honggildongjeon are similar to hermit novels(逸士小説). The protagonists of hermit novels don't come from Cheonsanggye. They are competent but fail to achieve victory against the contradictions of society and disappear in the end. This study reveal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nggildongjeon as a work of hermit novels. Commonly accepted view about the type of Honggildongjeon may need to be changed.

keywords: Honggildongjeon, Jeonwoochijeon, Heroic novels, Hermit novels, War novels.

접수일자: 2016. 9. 30. 심사기간: 2016. 10. 1.~2016. 11. 10. 게재결정: 2016. 11. 10.
